

# 2014년 나눔·힐링으로 전법을

## 부산지역 불교단체 새해 주요사업계획 발표

조계종 부산연합회(회장 수진)는 2014년을 한국불교 발전의 주춧돌이 되기 위한 교육, 문화, 복지, 장학 사업 등의 체계적인 제도정착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5대 중점사업으로 조계종 교육원 연수교육 인증 프로그램·조계종 신도회 결성고 신도들 간의 화합의 장 마련·조계종 사찰 운영에 대한 조계종 교육 지원 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특히, 조계종 교육원 연수교육 인증 프로그램은 3월 4일부터~4월1일까지 5주간 안국선원 교육관에서 실시되며 종단이 시행하는 연수교육 30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설립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보광선원 신축불사는 현재 외부 관광객들의 소음과 방문객들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선방 수와 스님들의 수행환경 개선을 위해 201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40억원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요양병원건립불사는 6월부터 착공하여 70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특히, 통도사는 승가복지재단을 설립해 스님들의 장학, 의료, 연금, 노후 등 스님들의 총괄적인 복지를 실행하여 스님들이 수행에 전념할

### 삼광사-소외이웃 돕기에 매진 대불청부산-수행하는 청년회 통도사-승가복지재단 설립계획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구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발표했다.

2013년 힐링사찰을 선포한 부산 삼광사(주지 무원)는 2014년은 마음살림불사의 해로 선포하고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은 "수행과 나눔을 통해 내면의 평화와 베푸는 즐거움이 가득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삼광사는 새해 벽

두부터 삼광사청년회가 중심이 되어 부산지역 일대 지역민들에게 연탄 나눔 활동을 했다.

올해로 창립48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는 올해를 "수행의 즐거움이 넘치는 청년회로 목표를 정하고 53청년구법순례를 원만하게 회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53청년구법순례는 수행이 중심이 되는 청년회의 원력 속에 부산지구 임원들이 중심이 되어 2012년 9월부터 매일 2회 부산지역 53개 사찰을 순례하며 우리말금강경 독송과 법을 구하는 형식의 구법순례로 현재 33차까지 순례를 진행했다.

생명나눔실천부산지역본부(본부



삼광사는 2014년을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는 불교를 선포하고 새해 벽두부터 연탄나눔 활동을 하고 있다.

장 원범)는 장기기증 결연과 환자치료를 지원 사업을 2014년에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명나눔 대학생 자원봉사 강좌, 견기대회, 시·산문 백일장 등을 진행한다.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올 해 개관 이래 최대의 외부 사업비 1억1천5백만원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미 유치가 확정된 주요사업으로 '청소년들의 생태체험과 환경보존 실천활동-초록물방울', '고위험군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저소득 독거노인의 행복한 노년 생활 프로그램-행복스케치', '유아용품대여점' 등이다.

생명나눔실천부산지역본부(본부

박경수 부산지사장

박경수 부산지사장

박경수 부산지사장

박경수 부산지사장

박경수 부산지사장

박경수 부산지사장

박경수 부산지사장

박경수 부산지사장

박경수 부산지사장

박경수 부산지사장

박경수 부산지사장

박경수 부산지사장

박경수 부산지사장

박경수 부산지사장

박경수 부산지사장

박경수 부산지사장

박경수 부산지사장

박경수 부산지사장

박경수 부산지사장

박경수 부산지사장

박경수 부산지사장

박경수 부산지사장

박경수 부산지사장

박경수 부산지사장

박경수 부산지사장

박경수 부산지사장

박경수 부산지사장

박경수 부산지사장

# 영천불교총연합회 창립법회

## 회장에 거조사 주지 태관 스님

경북 영천지역에 영천불교총연합회 창립법회가 조계종 10교구본사 은혜사 도선당에서 1월 10일 열렸다. 영천불교총연합회는 종파, 종단을 초월한 지역 사찰들이 뜻을 같이 했으며 이 자리에는 대중스님 80여 명이 동참했다.

은혜사 주지 돈관 스님, 법화종 용화사 혜각 스님 외 영천시내에 등록된 170여각 사찰 주지스님 가운데 이날 동참 스님은 80여 스님의 사찰 소개가 있었다. 은혜사 주지 돈관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가 현대에 절실히 필요하다. 오늘날, 지역 사찰 스님들은 연대에 종단을 초월 지역주민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장에는 조계종 은혜사 말사 거조사 주지 태관 스님이 선출됐다. 태관 스님은 전 영천불교 사암



영천불교총연합회는 1월 10일 창립법회를 열고 태관 스님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연합회 회장역임 경험으로 단일후보로 만장일치로 영천불교총연합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태관 스님은 "불교의 이념에 맞는 협의회를 구성 불교의 역할된 현실문제를 한목소리로 담아 해결하고, 불교의 시대정신에 맞는 지역사회의 갈등 해소, 포교에 역점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단체 설립의 뜻을 밝혔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는 임원단 구

성, 회칙안, 회의(정기총회 임시총회)등이 거론됐으며 이는 3월경 정기총회를 개최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영천불교총연합회는 지역내 젊은 인재육사로 중립학교 학교법인 동곡학원 선화여자고등학교와 3사관 학교를 중심으로 젊은 학생,교포교에 역점을 두고 있어 지역 포교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부산 비구니 모임 금련회 장학금 전달

## 다문화 가정·새터민 등에

부처님 출가제일을 기념해 부산 비구니 스님들이 다문화 가정과 새터민 청소년들에게 뜻 깊은 장학금을 전달했다. 부산지역 조계종 비구니 스님들의 모임인 금련회(회장 상화)는 1월 11일 부산 안국선원 교육관에서 부산지역 다문화 가정과 새터민 가정의 청소년 20명에게 각각

## 30만원씩 총 600만원의 무지개장

학급과 자비의 쌀 등 생필품을 직접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는 금련회 회장 상화스님, 전 금련회 회장 재운 스님을 비롯 금련회 소속 비구니 스님들이 함께했다. 상화스님은 "다른 처지, 다른 환경들이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여러 분들을 더욱 지혜롭고 자비롭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부처님 역시 여러 분들처럼 불편하고 고통스런 문제들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가하여 결국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다"며 출가의 의미와 함께 격려의 말을 전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 "사회 곳곳에서 수행하고 전법하길"

## 한문불전대학원·운문승가대학 졸업식

국내 최대 비구니 승가 교육의 산실 운문승가대학은 1월 13일 제50회 운문승가대학 졸업식과 제2회 한문불전대학원 졸업식을 호거산 운문사 경내에서 봉행했다.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은 훈사를 통해 "이타자리는 교학의 발전을 전제로 한다"며 "졸업생은 청안의 남자로 사회 각계각층으로 다가가 철석같은 의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수행하고 전법하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운문사 승가대학원장 명성 스님 승가대학장 보현을원 울주 흥륜 스님, 주지 일진 스님을 비롯 이종근 청도군수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한문불전대학원 졸업생 5명과 운문승가대학 졸업생 39명을 배출했다. 이로써 운문사 승가대학은 지금까지 총 1855명의 졸업자를 배출했다.

이에 앞서 운문승가대학은 대학원장 명성 스님의 제6회 전강식 법회를 열고 서광 원범 지성 스님 등 3명의 제자 스님들에게 전통 강원의 강맥을 전하는 전강강사의 자격을 수여했다.

이어 주지 일진 스님은 "간절한 그리움으로 수행에 힘쓰시면 번뇌를 떨칠 수 있을 것이기에 그리움의 힘으로 살아가라"고 인사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청암사승가대 졸업식...1월 14일

## 조계종 청암사(주지 상덕) 청암

승가대학(학장 지형)은 1월 14일 제28회 청암사승가대 졸업식을 경내 자양전에서 봉행했다.



청암사승가대학장 지형 스님,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 등 사부대중300여명이 참석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이날 졸업식에서는 청암승가대 및 율학승가대 7명, 제6회 청암사 율학 승가대학원 6명, 제2회 청암사 율학 승가대학원 연구과정 1명 등의 졸업식을 배출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청암사 주지 상덕 스님,

# 혜원정사 부산의료원 MOU체결

## 부산 혜원정사(주지 원호스님)는

1월 15일 대웅보전에서 부산광역시 의료원과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20여년간 부산의료원에서 자원봉사를 진행한 혜원정사와의 인연으로 성사됐으며, 혜원정사 주지 원호스님, 정문기 부산광역시의료원장을 비롯한 2백여

##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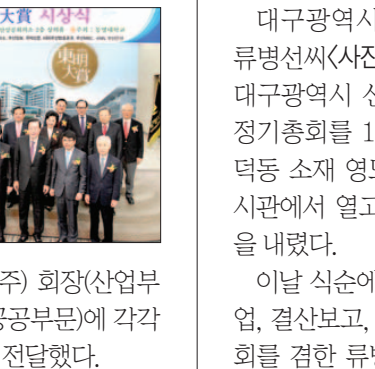
협약의 주요내용은 의료원은 향후 혜원정사 소속 스님과 신도들에게 진료편의를 제공하고, 혜원정사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인식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지역의료 발전을 돕기로 상호 협약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 제 6회 동명대상 시상식 개최

## 화승그룹 고영립 회장 외 2명 수상

동명대(총장 설동근)는 1월 17일 부산상공회의소 2층서 동명대상 제6회 시상식을 가졌다. 통도사신도회장 고영립 화승그룹 회장(봉사부문), 남정태 유일고무(주) 회장(산업부문), 이영환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공공부문)에 각각 선정됐으며 각 1천만원씩의 포상금이 전달됐다.



이날 행사에는 설동근 동명대학교 총장, 허남식 부산시장, 김석조 부산시의회 의장 등 각계의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를 함께 했다. 동명대상은 '도전창의봉사' 정신을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살려 공적을 쌓은 인사에 수여하는 부산을 상징하는 공익성 포상이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을..."

## 류병선 대구광역시 신도회장 재연임

대구광역시 신도회 회장에 류병선씨(사진)가 재선임됐다. 대구광역시 신도회는 2014년 정기총회를 1월 11일 오후 삼덕동 소재 영도다움 갤러리 전 시관에서 열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식순에 따라 의식 및 사업, 결산보고, 예산안 사업계획 심의 후 2부에는 신년회를 겸한 류병선(보광명)회장의 재임식이 진행되었다. 제9교구 대구광역시 신도회 류병선 회장은 2009년에 선임되어 2014년에 다시 연임하게 되었다. 류병선 회장은 (주)영도벨벳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지역 여성사업가다. 동화사 신도회에서는 무료급식소 자비의 집, 장학회 등을 후원하면서 재선임된 류병선 회장은 앞으로 장학재단을 임기 내 설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 II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7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6주 베스트셀러 1위**

**마음이 부처가 아니라 견성은 머니먼 수행의 시작입니다**

**스승이 없는 시대! 이 책이 여러분을 정법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개정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부처님께서는 무아속 절대계에 32상 빛의 몸으로 여여히 계신다.”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왜 불교인가 (근간)**

대현 김주영 지 (서울공대 공학박사, 대학원 초빙교수, 정영실상 수상)

추천 도서

**영산불교 현장사의 화제의 신간!!**

**영산불교 지장보살본원경(근간)**

서연 이대성 지 (00 대학교수, 철학박사)

“철위산 안에는 지옥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참으로 지옥이 있습니다. 그곳은 부처님의 위신력과 엄력(業力), 이 두 가지 인연으로만 갈 수 있을 뿐입니다.”

(도리천궁신동품 중에서)

지장보살본원경은 지옥중생을 제도하시는 지장보살님의 인행(因行)과 서원을 밝히고 있고, 우리가 저지르는 악업의 과보를 밝혀서 그 과보로 가게 되는 지옥의 실재를 설하고 있는 중요한 대승경전이다. 이 책은 이전 어떤 해설서와도 차원이 다른 영산불교만의 깊이 있는 지장보살본원경 해설서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지장보살님의 실재를 처음으로 밝히고 있다. 지장보살본원경 13품을 각 품별로 자세한 해설을 달았고, 지장경을 봉독함으로써 10선을 행하여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따라 배우고 실행하여 훌륭한 불자로 거듭나서 윤회생사에서 벗어나기를 간곡히 당부하고 있다.

저자는 “왜 불교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먼저 우주적 질리인 영산불교의 관점을 분명히 견지하면서 기존의 모든 철학 과학 종교를 긍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비판한다. 인간의 역사속에서 철학과 과학, 종교가 태동하고 다양하게 발전해왔지만 오직 불교만이 인생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저자는 기존불교를 불완전한 반자(半字)불교로 규정하고, 기존불교를 포함해서 이때까지의 어떤 철학 과학 종교도 해결하지 못했던 인류사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한 영산불교를 만자(滿字)불교로 보고 불신론 영혼체론 생사관 수행관 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우리 인간의 삶은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으로서 신불교 영산불교의 가르침을 제시한다. 이 책은 저자가 한평생을 살면서 모색해왔던 구도의 역정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역작이다.

추천본사 T. 033)243-1795, 243-1787 불서출판 운주사 T. 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